

# 한국 주택에서의 마루공간의 의미와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문학작품에 나타난 주거공간용어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meanings and functions of "Maru" in the Korean dwelling space in the literatures.

**최 경실(Choi, Gyoung-Sil)**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학부 환경디자인전공 조교수

**김 대년(Kim, Dae-Nyun)**

서원대학교 가족환경학과 교수

**오 혜경(Oh, Hye-Kyung)**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전공 교수

**서 귀숙(Suh, Kuee-Sook)**

승실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전임강사

**신 화경(Shin, hwa-Kyoung)**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조교수

1. 서론

2. 연구범위 및 방법

3. 문장 의미해석에 의한 주택 내 마루공간에 관한 용어의 특성 및 변화

- 3-1 문장의미해석에 의한 마루공간용어특성
  - 3-1-1 마루의 규모에 따른 용어특성
  - 3-1-2 주거공간 내 위치에 따른 마루공간용어 특성
  - 3-1-3 공간기능 분석에 의한 마루공간용어의 특성
- 3-2 마루의 시대적 의미변화

4. 결론

5. 참고문헌

(요약)

본 연구는 문학에서의 마루의 성격과 기능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방법론적으로 문학작품들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선택되었으며, 작품에서 나타나는 마루들이 역사적 연관관계 속에서 고찰되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개념적 정의의 측면에서 마루와 더불어 사용되는 대청이라는 용어는 비슷한 의미를 띠는 것이면서도 위치한 장소와 크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었다. 즉 집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비교적 넓은 공간을 차지한 마루는 대청이라 불렀다. 반면 마루에서는 크기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둘째: 기능적 측면에서 마루 공간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 집안의 중요한 의식이 열리는 공간이다.
- 두 개나 여러 공간을 연결하거나 한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 집 전체 공간의 위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 사람들을 맞는 공간의 기능을 한다.
- 가족 구성원들의 주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때로는 수면을 취하는 등, 종합적인 기능공간이다.
- 그 외 작업을 하거나 물품을 보관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셋째: 역사적으로 볼 때 마루는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미 변화를 겪었다.

- 마루라는 용어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학작품에서 거의 예외 없이 등장한다. 특히 1930년대에는 마루라는 용어 대신 양실이나 거실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 현대에 들면서 앞마루나 뒷마루와 같은 위치적 특성을 고려한 용어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1900년대 이후 주거 공간이 구조상의 변화를 겪으면서 마루가 내부 공간으로 편입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Abstract)

The study concerned has the meanings as a goal, to examine a character and changes of function of "Maru" in the literatures historically. Methodically the literatures in the temporal consequences were selected, and the "Maru", which comes into it, was interpreted in its historical connections. By the investigation I could come to the following results.

First of all, those terms "Maru" and "Daechung" were differently used after the sizes and places of the spaces concerned. I.e. the "Maru" in the center of the house is called "Daechung". With the Maru does not concern actually its place.

Secondly, the functions of the space "Maru" are characterized as follows.

- Space for the important ceremonies

- Space for the passage and the switching of two or several spaces.
- Determination of the hierarchy of spaces in the whole house.
- Space for the receipt.
- Space for sleeping and for living.
- Space for work, storage etc.

Thirdly, the meanings of the "Maru" were changed as follows in the time.

- The term "Maru" was used from the past to today without interruption. Around 1930 the terms "Yangsil" and "Geosil" for the term "Maru" were emerged.
-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for the space "Maru" are found in the contemporary literatures only rare. This thing explains itself by the fact that the "Maru" becomes the inner-space after 1900 by the restructuring of the dwelling spaces.

(Keyword):

Literature, dwelling space, "Maru", "Geosil"

## 1. 서론

문학작품을 통해 묘사된 건축공간용어는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제시하고 사라지는 변화를 거듭하면서 일정한 문화적 공간적 범위 내에서의 인간 삶의 양태를 전달하고 있다. 화이트헤드는 그의 저서 「사고의 양식 (Mode of Thought)」에서 전달수단의 변화가 감각체계의 구성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sup>1)</sup> 작가가 묘사를 통해 구체적 건축공간을 묘사한다는 것은 작가 본인의 건축적 공간 경험에 기반한다. 그것은 단지 개인적 경험의 표현일 뿐 아니라 그 시대적, 사회적 관련성을 지닌 공간에 관한 동시대인들의 공통의식을 반영한다고 전제할 수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롤랑 바르트는 대상물에 대한 묘사를 통해 사실적 효과가 가중된다고 한다. 이것은 문학적 텍스트를 통해 용어의 기호적 특성이 가중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용어의 기호적 특성은 실제의 건축공간이 갖는 특성에 비해 공간적 시간적 영향력이 더욱 강함을 시사하며, 시간의 흐름을 통해 발생하는 변화에 대한 사회적, 기능별 변화를 고찰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있음을 알게 한다.

본 연구는 문학작품에 묘사되어 있는 주거공간에서 공간 용어의 사용과 사용의식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분석하고, 공간용어변화를 분석한 지난 논문<sup>2)</sup>에 이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주거공간내의 하나의 부분공간인 마루에 대한 공간 용어의 의미, 특성 및 변화를 고찰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를 통한 의미분석만으로 공간이 지니는 모든 의미를 알아낼 수 있다는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서 연구자가 특히 관심을 가진 부분은 주거공간 전체가 아닌 매개공간의 성격을 띤 부분공간이 전체공간조직속에서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또한 그러한 성격을 지닌 공간의 기능적의미와 그 변화양상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디자이너들은 대상을 창조하지만 그 대상을 분류하고 해석하기에 따라, 한 건물이 끼친 반향은 달라질 수 있다. 18세기부터 의미형성과정에 있어서 디자이너의 역할은 종종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고찰되어져 왔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환경속에서 그들 자신의 의미를 -반드시 디자이너와 공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공동사회와 공유하고 있는 표현 체계로 이루어진 그들 자신의 준거틀로부터 그들 자신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다.<sup>3)</sup>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문학작품속에 공간묘사가 어떻게 되어있나를 분석해본다는 것은 현상적인 관찰을 통한 의미파악의 방법과는 또 다른 방법적 의미를 띠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1) 월터 J. 옹 저(이영길 역), 언어의 현존, 서울: 탐구당, 1985, p.17.

2) 「문학작품을 통해서 본 한국 주거공간 용어에 관한 연구」 서귀숙, 김대년, 신화경, 오혜경, 최경실, 한국실내디자인 학회 논문집 15호, 1998, 6, pp.49-61

「한국 주거공간용어 변화에 대한 기초연구」 신화경, 김대년, 서귀숙, 오혜경, 최경실,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998, 6, pp.

3) Architecture and its interpretation, Juan Pablo Bonta(서유석 역), 서울: 기문당, 1995, pp.300-310

##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문학작품에 나타난 주거공간용어를 대상으로 한정한다. 시대변화 요인에 기준한 시대구분을 거쳐, 각 시대에 해당하는 문학작품 중에서 소설형식의 작품을 국문학자의 추천을 통해 63개의 문학작품을 선정하였다.<sup>4)</sup> 각시대에 해당하는 작품중 주택공간 묘사가 잦아 주택공간 용어에 관한 관찰이 용이한 작품으로 선정하였고, 시대별로 작품수가 차이나게 부족한 시대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연구자들의 검토하에 추가 선정하였다. 시대구분은 다음과 같이 시대요인에 따라 7단계로 구분하였다.

- 1900년 이전** : 근대이전 조선시대 전통건축의 시기
- 1900년-1930년**: 1910년대 한식, 양식을 절충한 절충식주택, 다층주택 등의 보급, 1920년대 신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주택개량운동 등으로 주택변화 과도기
- 1930년-1950년**: 20년대 신문화운동의 여파로 실질적 변화시기 주택 수요 급증에 따른 개량한옥 보급시기
- 1950년-1960년**: 해방과 6.25사변후 서구문물 도입이 주거변화에 영향을 준 시기
- 1960년-1970년**: 경제개발계획실시로 주택대량공급 본격화시기
- 1970년-1980년**: 경제 성장기로 주택규모가 커지는 변화시기
- 1980년 이후** : 경제전반의 침체기,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집합주택, 다세대 주택 보급<sup>5)</sup>

선정된 작품을 소설내용에 나타난 배경연도 별로 위에서 나눈 7단계의 시대구분에 따라 다음(표1)과 같이 작품들을 분류하였다.

<표-1> 시대별 작품 분류

시대구분	1900이전	1900 - 1930	1930 - 1950	1950 - 1960
작품명	춘향가, 홍부전 홍부전 임꺽정	대하, 귀의성 삼대 무정 화수분 고향 흙 배따라기 행랑자식 흥가 토지	허물어진 환상 토지 창랑정기 경영 인간사 맥 소 김자 밭을 한다.	애미, 비오는날 월촌, 장마, 관촌수필, 난리 그 뒤 납품, 미망, 고무신 머루,수련 온넷골 이야기 메아리, 화산맥이 오지에서 온 편지 어린 상록수 태양의 유산 언덕을 향하여 장씨 일가 흰종이 수염 남한산성, 노을

시대구분	1960 - 1970	1970 - 1980	1980년 이후
작품명	노을,투기 이브의 변신 녹지대와 분홍의 애드벌룬, 아홀컬레의 남은구두로 남은..., 이여도, 전황당인보기, 흑산도, 꺼삐딴리,	장석조네 사람들 우묵배미의 사랑 지상의 방 한칸	압구정동엔 비상구가 없다. 떠있는 망두 목마른 계절 모든 벽은 문이다. 그림자 외출 외딴방

1. 이렇게 선정된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연구자별로 일정 양을 분담하여 주거공간용어를 추출하고 관련문장을 수집, 분류하는 방식으로 연구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연구 부분에서 이미 진행되었다. 그 결과 다음(표2)와 같이 주거공간용어가 추출되었다.

4) 서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외곤 교수님, 경희대학교 국문학과 김현주 교수님의 자문에 의해 작품 선정.

5) 「한국 주거공간용어 변화에 대한 기초연구」 신화경,김대년,서귀숙,오혜경,최경실, 한국주거학회 논문집,1998,6, pp.98-100 참조

<표-2> 주거 공간 용어와 빈도조사

시대 구분	주거 공간 용어와 빈도
1900 이전	방:1078 안방:189 건넌방:176 사랑(방):205 행랑(방):43 대청:35마루:208 부엌:67 마당,뜰:231 측간, 찻간:2 뒷간:19 광:16 곳간:21 헛간:7 마루방:1오양간:1마굿간:8 봉당:68 윗목,웃목:13 아랫목:25하인청:5 모방:1 다락:11별당:22침실:12뒤꼍:12 뒷간:17 아랫간:12 미방:1 제청:1부뚜막:1 집앗간:1 장독대(가):1
1900~1930	방:296 안방:78건넌방:56 사랑(방):152 행랑(방):67 대청:26찻간:1마루:165부엌:126 마당,뜰:312뒷간,동숙간:29통시,변소:8 곳간:3광:3헛간:15마굿간:5 도방:12 다락:1외양간,오양간:17 양실:3 윗목,웃목:28 아랫목:25 별당:30 뒤꼍:17 안꼍:1뒷간:3별실:1아래간,아랫간:2후간:1마방,마방간:6상청:2제청:2청간:3 부뚜막:6 인자간:2장간:1음:1현관:2 복도:2 욕실:1 목욕탕:2 아궁지:8 주방:1찬방:4서고:1서재:2부석:1 정기:2 위안:8 까대기:7 장독대(가):6 마루방:1다락:1 난간:1 윗부석:1 뒤켠,뒤쪽:8
1930~1950	방:262안방:37 건넌방:11사랑(방):42 행랑(방):5막간(행랑):1 대청:16 마당,뜰:58 마루:103마루방:3 부엌:67아랫목:6 웃목:1 윗꼍:2변소:2통시:1 뒷간:2 화장실:5 욕실:1 광:1곳간:1헛간:2 창고:1외양간:2 마구간:1퇴:1거실:4현관:6출입구:1아래층:3위층:2침실:3복도:17목욕탕,목욕간,욕탕:4통로:1식당:7로비:1 취사장:10 층계,계단:22 보일러간:1부뚜막:6사당:1아궁이:2고방:1 도장:2응점실:3뒤켠:2별당:11장독(가):9
1950~1960	방:105안방:17건넌방:10사랑(방):20 행랑방:3 대청:14 마루:33 정지:2마루방:2 마당,뜰:4토방:1 창고:2 광:3 헛간:6 변소:7 통시:4 뒷간:7 찻간:1부엌:60 부엌방:5 현관:3서재:2거실:3침실:1마굿간:1객실:1 별실:1 응점실:2 뒤꼍:1
1960~1970	방:18 안방:8 건넌방:4 사랑(방):2 대청:3 마루:15 마당,뜰:1 부엌:23 정지:1부엌방:2 식당방:1식당:2 통시:4 뒷간:1 화장실:1 현관:6 헛간:1창고:1 거실:1 응점실:1 뒤꼍:1 욕실:3 테라스:1다락:1 찬간:1 복도:1 계단:1
1970~1980	방:94 안방:2 건넌방:2 사랑(방):2 마루:3 마루방:1 마당,뜰:5 부엌:24 정지:1변소:8 통시:4 뒷간:2 동두간,동통:2 현관:2 뒤꼍:1부뚜막:2 수돗가:1거실:1뒤꼍:1 지하실:2 화장실:2 세면장:2 목욕탕:1
1980 이후	방:48안방:16 건넌방:13마당,뜰:12부엌:24 주방:16 마루:17거실마루:1거실:21 침실:10화장실:11 변소:2 뒷간:1지하실:2 창고:1 다락(방):9 우사:1 마굿간:12 부뚜막:3 아궁이:1장독간:1계단:2 베란다:11목욕탕:2 욕실:2 현관:26 아파트 현관:1 응점실:4 의상실:2 서재:6 옥상:7

범주 : 숫자는 빈도수를 나타낸다.

출처) 「문학작품을 통해서 본 한국 주거공간 용어에 관한연구」, 서귀숙,김대년, 신화경,오혜경,최경실, 한국실내디자인 학회 논문집 15호.

2. 선행연구에 이어 보다 세분화된 공간범위를 설정하고 마루공간의 의미분석을 위한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미 추출된 주거공간용어를 대상으로 마루의 특성

을 지니는 공간용어를 시대별 구분을 하여 추출하게 된다. 시대 구분은 소설내용에 나타나는 배경년도에 따라 다음 (표3)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7개 단계로 구분되었다.

<표-3> 마루 공간 용어의 시대에 따른 용도별 분류

시대 구분	1900 이전	1900 ~ 1930	1930 ~ 1950
공간용도			
마루① 침실(어룡용) 및 모임	대청마루,마루,삼간마루,대청,대청마루,봉당,도방마루=도마루,마루방,들마루	마루=마리,대청,단칸마루,도방.	마루
마루② 모임 및 손님 접대	안마루,안대청,삼간마루,마루,대청마루,삼간대청,육간대청,앞마루,	육간대청,사칸대청,큰대청,큰마루,안마루,안방마루,안대청,대청마루,사랑대청,사랑마루,양실=마루	육간대청,대청마루,마루방,큰사랑,앞마루,사랑마루,별당마루,거실,응점실
통로 및 복도	윗마루,난간마루	윗마루,윗마루,쪽마루,복도	퇴=윗마루,층계,복도,계단통로,베란다

시대 구분	1950 ~ 1960	1960 ~ 1970	1970 ~ 1980	1980 이후
공간용도				
마루① 침실(어룡용) 및 모임	마루,마루청,대청,도방,마루방		마루=마리,마루방,도방,마루청	
마루② 모임 및 손님 접대	청마루,대청,사랑마루,사랑대청,앞마루,마루방,응점실,거실	마루,대청,대청마루,마루청,응점실,거실	대청마루,거실	마루,거실,응점실,거실마루
통로 및 복도	윗마루	복도,계단,테라스		목마루,나무계단,계단,베란다

참조) 「문학작품을 통해서 본 한국 주거공간 용어에 관한연구」, 서귀숙,김대년,신화경,오혜경,최경실, 한국실내디자인 학회 논문집 15호.

3. 대상 작품의 문장해석을 통해 마루와 통로(배개공간)적 성격을 띤 공간용어에 대한 기능별, 위치, 규모별 공간의 의미와 특성을 분석하고, 주거공간에서 마루의 시대적 의미변화에 대하여 고찰한다.

### 3. 문장 의미해석에 의한 주택 내 마루공간에 관한 용어의 특성 및 변화

#### 3-1 문장의미해석에 의한 마루공간용어특성

##### 3-1-1 마루의 규모에 따른 용어특성

마루공간의 공간용어를 표3에서 추출해보면 우선 마루에 관한 공간용어는 대청마루, 대청, 마루청, 마루, 거실마루, 양실, 거실, 사랑대청, 툇마루, 뒷마루, 윗마루, 안마루, 앞마루, 별당마루, 분합마루, 난간마루, 쪽마루,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마루를 지칭하는 공간용어들을 살펴보면 공간의 규모나 위치 관계, 공간기능에 따라 용어가 세분되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청과 마루'는 같은 의미를 지닌 공간용어이지만 주로 공간의 규모를 기준으로 구별되어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육간대청에 나왔어 있던 윤씨부인이 일어섰다. 육간대청은 시원했다. 터놓은 대청뒷면에 후원이 내다보인다.(토지1권 p.270)], [복판은 큰대청인데(토지8권 p.287:23)], [육간 대청을 끼고, 퇴까지 합하면 여덟간이나 된다.(창랑정기. p.12)], [부엌과 안방, 널찍한 대청과 작은방으로 안배된... (토지11권 p.25)], [보우가 큰 대청 한중간에 무엇을 놓고 높이 앉았는데...(임격정3권, p.206:22)], 큰 대청 앞에 넓은 마당이 있었으니 대청복판에 주홍칠한 상이 놓였는데 상 위에는 비단 방석을 깔아놓았고 상 앞에 대청 위에는 새 기적을 깔아놓았고...(임격정3권, p.244:1) [큰 대청을 사이하여 이쪽저쪽으로 갈라진 방에 결코 등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토지1권. p.338)], [그러니까 두 칸 겹집이다. 방 앞에는 손바닥만한 툇마루가 있고 세수대야 하나가 땡그렇게 놓여있다.(임격정3권, p.341)] [별당채만두 조그만 여염집 만해서 안방이 이 간, 마루가 삼간, 건넌방이 한간인데...-임격정5권 p.176:17)], [그런데 마루만은 넓어서, 세간...(홍. p.31)]

위에 제시된 문장에서처럼 대청이라는 용어 앞에는 일반적으로 넓다는 의미의 수식어나 구체적인 단위를 제시하면서 규모를 나타내는 수식어가 수반되어 있으며, 넓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좁거나 평범한 규모인 경우 마루라는 용어로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1-2. 주거공간 내 위치에 따른 마루공간용어 특성

주거공간 용어중 다른 공간명칭에 비해서 마루는 공간위치나 구조, 재료에 따른 특성이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는 공간용어이다. 일반적으로 대청은 공간을 지칭하는 명칭이지만, 마루는 원래 공간의 재료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문학작품에 나타난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러한 의미의 구분없이 공간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육간대청을 가운데 끼고, 퇴까지 합하면 여덟간이나 된다. (창랑정기, p.12:4)] [큰 대청을 사이하여 이쪽저쪽으로 갈라진 방에 결코 등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토지1권. p.338)], [복판은 큰대청

인데(토지8권 p.287:23)], [마루하나 방하나, 방 뒷면에 부엌이 있는 모양이다.(토지3권 p.341)] [마루가 있고 마루 안쪽에 방이 있고 마루결에 있는 툇마루가 달린 큰방이 서희의 거실이다. (토지3권 p.224)] 여기에서 대청은 주거내에서 그 구체적인 위치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방과 방 사이에 위치하는 마루가 대청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그에 반해 마루는 공간위치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위치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함을 드러낸다. 즉 대청과 마루는 공간의 위치에 따라 구분되어 용어사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공간위치에 따른 마루공간용어는 다음과 같이 안마루, 안대청, 앞마루, 사랑대청, 사랑마루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자 안마루에서 마님이 무엇을 보다가 운다는 소리를 듣더니 미안한 생각이...(행랑자식, 143:1)] [막봉이가 안마루에 청경뛰어 올라설 때 박선달이 안방 머리맡 문을 열고...(임격정5권 p.104:12)] [천왕동이가 안마루 앞에 들어올 때 장모는 안방에서 내다보고 안해는 건넌방에서 나왔다.(임격정5권 p.256:7)] [준구는 사랑대청에 무료하게 앉아서 내려앉을 것 같은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토지1권 p.197)] [사랑마루 건넌방에서는 늦게까지 열두살된 치수도령의 글썽하는 소리가 들려왔다.(토지1권 p.277)] [사랑마루에 걸터앉은 연화는...(토지13권 p.371:16)]

안마루는 안채에 위치한 마루를 지칭한다.<sup>6)</sup> 한옥의 안채와 사랑채에 각기 부속된 마루공간의 용어는 그 위치에 따른 명칭으로 불리워진다. 위의 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그것은 부속된 위치에 따른 명칭임과 동시에 공간 사용자에게 따른 공간명칭이기도 하다. 마루의 위치에 따른 공간명칭이 구분되는 또다른 예는 다음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가옥의 앞쪽과 뒤쪽으로 구분된 앞마루, 뒷마루라는 공간용어로 나타난다. [조식이 혼자 칼을 안고 앞마루에 앉아서 혼자 슬피 노래를 부르는데...(임격정3권 p.196:22)] [걱정이와 봉학이가 앞마루로 들어서는 것을 보자 같이 난간마루에서 앞마루로 내려왔다.(임격정3권, p.304:25)] [툇마루, 후원을 바라볼 수 있게...(토지8권 p.334:18)] 앞마루는 집의 앞쪽에 있는 마루를 의미하고, 뒷마루는 집의 뒤쪽에 붙은 마루를 의미한다<sup>7)</sup>

##### 3-1-3 공간기능 분석에 의한 마루공간용어의 특성

마루에 관한 공간용어가 대청마루, 대청, 마루청, 마루, 거실마루, 양실, 거실, 사랑대청, 툇마루, 뒷마루, 윗마루, 안마루, 앞마루, 별당마루, 분합마루, 난간마루, 쪽마루,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주거공간내에서 다른 공간의 기능이나 특성에 비해 마루의 공간적 구조나 기능적 특성이 복합적이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설의 문장에 나타나는 공간기능 묘사를 통해 다양한 마루의 기능에 의한 의미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조상난 뒤 열흘이 채 못되어서 안마루 한구석에 있는 상청명

6) 「우리말 큰사전 2권」, 한글학회, 어문각, 1992 p. 2737

7) 앞글 1권 p.116

색과 건정으로 지내는 조석 상식 외에는 초상난 집 같지 아니 하였다.(임격정2권 p.167:20) [별당이 영당으로 변하고 마루 안침에 불상을 띄어놓은 까닭에 여러사람은 마루앞에 와서 발을 멈추고 울긋불긋 섰다.(임격정6권 p.282:4)] 첫 번째 마루의 기능적 특성을 들면, 위의 묘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마루에서는 경건한 종교적 행위, 혹은 조상에 대한 숭배의 예를 올리는 경건한 의미를 지닌 예식공간으로 사용되어 졌다. 이러한 현상은 마루공간이 집회의 형식에 적합한 기능성을 지닌 공간임을 나타내준다. 전통적 주거에서 마루는 일상 생활의 의미와 함께 주택내에서 개방적 공간으로서 상징적 의미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8)</sup>

둘째, 마루는 구성 형식에 있어서 내부와 외부에 잇는 매개적 속성을 지녔으나, 그 기능성에 있어서 마루는 이미 주거공간내 중요공간으로 간주된다. 마루의 매개적 완충공간의 특성, 통로공간의 특성은 다음의 예문들에서 잘 나타난다.

「마루로 올라오며 곧 안방으로 들어오는데 여러사람이 다 그 뒤를 따라 들어왔다.(임격정5권.p.102)」 「막봉이가 박선달을 떠밀고 방에서 마루로 나오고 마루에서 마당으로 내려왔다.(임격정5권.p.104:22)」 [천황동이가 안마루 앞에 들어올 때 장모는 안방에서 내다보고 안해는 건넌방에서 나왔다.(임격정5권 p.256:7)] [세사람이 같이 마루로 나가서 수군수군 공론하고 건넌방으로 들어갔다.(임격정5권.p.257:)] [대청을 지나 건너편 방으로 해서 그방에 잇달린 골방으로 들어간.(토지1권 p.15)] [마루를 지나 방문을 두르르 열었다.(토지1권. p.223)] [마루를 질러 안방문을 열어젖혔다.(토지1권. p.235)] [큰 대청을 사이하여 이쪽저쪽으로 갈라진 방에 걸코 등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토지1권. p.338)] [마루가 있고 마루 안쪽에 방이 있고 마루결에 있는 툇마루가 달린 큰방이 서회의 거실이다.(토지3권. p.224)]

매개공간은 본래의 두 공간을 연결하는 공간이며, 자체의 독립된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 매개공간은, 크기가 충분하다면 두공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유력한 공간을 형성할 수도 있고, 자체에 관련된 많은 공간들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점이 위의 예문에 잘 드러나고 있다.<sup>9)</sup> 즉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리된 두공간은 제 3의 매개물이나 공간에 의해 상호 연결되거나 연관성을 갖게된다. 두 공간의 시각적, 공간적 관계는 그들을 연계시키는 제3공간의 본질에 의해 좌우된다.<sup>10)</sup>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마루는 주거공간의 연계성, 위계성, 기능성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공간적 성격을 지닌 것을 알 수 있다.

세째로, 마루는 사랑방과 같이 손님을 대접하는 응접공간의 기능적 특성을 지닌다.

「새 손님을 앉히게 마루에 자리 좀 깔게」하고 소리쳐 말하여...(임격정5권. p.169) [서당도 되고 사랑도 되는 대청하나가 따른 두칸방에는...(토지1권. p.198)] 「마루에 올라앉아서

이야기합시다.」하고 말하여 두사람이 같이 판도방 마루 끝에 와서 걸터 앉았다(임격정3권 p.303:8)

넷째, 마루는, 침실, 거실용도로 주로 많이 사용되며, 방의 주기능을 포함한 다른 복합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공간기능을 갖는다. 마루는 일반적으로 주거의 중심에 위치하여 가족 모임또는 단란의 장으로 활용되기 쉬운 잇점이 있다. 문장을 제시하여보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시대배경을 하고있는 소설에서 마루가 방의 주기능인 침실 또는 식당, 가족단란의 장소인 거실로 기능하고 있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주택공간내서 마루는 방의 기능을 포함한 여러 복합적인 기능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장소로 여겨진다. [애기 모녀와 백손이 모자는 마루에서 잤다.(임격정4권. p.36)] [이방이 안마루에 누워서 딸에게 다리를 주물리다가...(임격정5권. p.196)] [애기모녀는 마루에서 밥을먹고 저녁을 먼저먹은 사불이와 돌이...(임격정1권. p.234)]-1900년 이전 배경, [대청마루에 선풍기를 켜놓은 채 누워있던 노파가 기우똥 몸을 일으켰다.(무정. p.175)] 1900-1930년경, [식구들이 마루에서 조반을 막 끝내려 하고 있을 때였다.(토지12권. p.204)]-1930-1950년경, [마루청에 돛자리를 펴고 신문아니면 책을 뒤적이다가...(오지에서온 편지. p.139)] 1950-1960년경, [최지만씨는 여름이면 대개 대청에서 기거한다.사랑보다는 대청 쪽이 시원하기 때문이다.(남풍. p.240)] 1950-1960년경, [그때 마침 나는 마루에 엎드려 숙제를 하고 있었다.(노을. p.23)]

### 1950-1980년경

다섯 번째로, 마루는, 작업공간, 수장공간 등 다용도실로서의 기능을 공유한다. 마루는 반외부이며 동시에 반내부공간으로서의 특성에 걸맞은 이용행태를 보인다.<sup>11)</sup> [쌀말이나 주자 한들 삼간 대청 큰 두지에 가득가득 담았으니...(홍보전. p.185)]-1900년 이전 [마루의 찬장에서 난아가 혼자 집어내왔다고 그러는거야. 알지?(이브의 변신 장신재. 동서문화사 p.449)]-1960-1970년 배경, 앞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마루는 어느곳에서든 접근이 용이한 위치와 개방적 구조상의 특성에 기인하여 오랜시기에 걸쳐 수장공간의 기능을 변함없이 지니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치,구조상의 특성은 다음 문장들에 잘 나타난대로 마루공간을 작업공간으로서의 유용성을 지니게 한다. [유복이의 안해는 부리는 계집아이를 데리고 마루에서 술을 거르고 있었다.(임격정4권. p.210), [여편네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늙은이와 계집아이는 마루에서 반찬을 장만하는 중에...(임격정5권.p.355)] 1900년 이전, [마루에 나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던 봉순네가 벌떡 몸을 일으켰다.(토지1권. p.364)] 1900-1930, [걱정과 봉화이가 앞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자 같이 난간마루에서 앞마루로 내려왔다.(임격정3권. p.304:25)]

윗 문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루공간은 여러 가지 구조적 형태로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3-2 마루의 시대적 의미변화

8) 이 중우, 「채용사상에서 본 주거공간의 변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p.5 참조

9) Francis D.K.Ching(황 연숙 역) Form,Space,and Order, 서울:도서출판 국제, p.182

10) 앞글

11) 김 종인, 「마루. 대청의 의미와 변용」, 한국주거학회지:창간호, 1990.6, p.29.

앞에서 기능별, 위치, 방향, 규모별 기준에 따른 마루의 상징적 의미등 특성 분석을 통해 용어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소설의 배경으로 묘사된 마루공간의 시대적 변화를 고찰해 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용어변화에 따른 특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선정된 총63개의 소설 중에서 32개 소설에서는 마루공간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나머지 31개 작품에 자주 사용된 마루공간 용어를 앞에서 제시한 (표3)을 참조하여 시대별로 정리하면 다음<표4>와 같다.

<표4> 소설에 나타난 마루공간용어의 시대별 구분

시대구분	용어
1900년 이전	대청마루, 마루, 육간대청, 안대청, 대청, 삼간마루, 토방마루, 앞마루, 토마루, 들마루, 뒷마루, 난간마루
1900년-1930년	마루, 대청, 육간대청, 안방마루, 안대청, 안마루, 뒷마루, 사랑대청, 뒷마루, 쪽마루, 양실
1930년-1950년	마루, 육간대청, 대청마루, 마루방, 앞마루, 사랑마루, 별당마루, 거실, 응접실
1950년-1960년	마루, 마루청, 대청, 마루방, 사랑마루, 앞마루, 거실, 응접실,
1960년-1970년	마루, 대청, 대청마루, 마루청, 거실, 응접실
1970년-1980년	마루, 마루방, 토방, 마루청, 대청마루, 거실
1980년 이후	마루, 거실, 응접실, 거실마루, 목마루,

여기서 제시된 마루공간용어를 살펴보면 시대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과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부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관찰할 수 있다.

첫째, 전 시대에 걸쳐 대청과 마루는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이점은 1900년대이전부터 내려오는 마루의 고유한 형태, 기능, 구조적특성은 광범위하던지 혹은 부분적이든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시간이 흐를수록 육간대청, 마루방, 앞마루, 쪽마루 등, 공간위치나 규모, 혹은 재료나 구조 등을 나타내는 접두어가 있는 마루공간용어가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로 올수록 마루공간의 구조적, 형태적 다양성이 소멸되어감을 나타낸다.

셋째, 이미 1930년을 전후하여 고유한 마루와는 관련성이 적게 느껴지는 양실, 거실이라는 공간용어가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공간용어의 변화는 이시기가 외래문화의 유입이 고유한 주거문화에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임을 짐작케 한다.

넷째로, 앞마루, 뒷마루, 안마루, 뒷마루, 사랑대청 등의 다양한 용어들이 사라지는 현상은 마루의 공간적 형태나 구조적특성만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마루공간이 기능적 복합성이나 다양성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지는 것이다. 「안마당, 안대청, 안마루」 등의 용어가 1960년대 이후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이 용어들은 전통주거에서 주로 불리워진 용어

라고 말할 수 있다.<sup>12)</sup>

다섯째, 마루공간의 개방적구조가 지니는 의미는 크다. 현대로 올수록 그 개방성은 폐쇄된 공간유형으로 변형됨을 알 수 있다.<sup>13)</sup> [정순봉이 집안의 권속을 데리고 안대청에 앉아서 새로 생긴 노자 비자의 현신을 받는중에...(임격정3권 109:11)]-1900년 이전, [임금이 신하의 조의를 받듯이 식전에는 대청에 놓인 주홍교의에 나왔아서 하인들의 문안을 받되... 임격정3권 171:16]-1900년 이전, [대청의 뒷문을 열어놓고(토지9권 473:2)], 1900-1930년경, [현관문이 여 달히는 듯한 반향음이 들리는것 같아 나는 거실로 나갔다.(떠있는 망루 P.164)], [장소는 세영의 조그마한 서재며 침실로 쓰는 그의 거실이였다. (남풍 397)] 앞의 이러한 내용을 보면 실내와 실외를 잇는 매개적성격이 미약해지는 공간기능, 형태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임금이 신하의 조의를 받듯이 식전에는 대청에 놓인 주홍교의에 나왔아서 하인들의 문안을 받되... 임격정3권 171:16)] 1900년 이전 [마루가 있고 마루 안쪽에 방이있고 마루곁에 있는 뒷마루가 달린 큰방이 서희의 거실이다. (토지3권 p.224)] 1900-1930년경. [대청의 뒷문을 열어놓고(토지9권 473:2)], [1900-1930년경, [말이 하숙이지 누구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왔는지 알 수 없으나 호화판 양육의 거실이였다.(토지4부10권. p.429:14)] 1930-40년경, [빨간 비닐의 식탁의자에 웅송그리고 앉아, 거실 마루 끝에 걸린 겨울 햇빛자락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모든 벽은 문이다. P.165)] 1980년 이후 [거실에서 다시 방으로 따라들어와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기자가 입을 열었다.(압구정동엔 비상구가 없다. P.71)] 1980년 이후 [장소는 세영의 조그마한 서재며 침실로 쓰는 그의 거실이였다.(남풍 397)] 1980년 이후 그는 어김없이 서재에서 거실로 나온다.(떠있는 망루 P.164)1980년 이후 냉동실에서 꺼낸 얼음을 아삭아삭 씹어 먹으며 빈 거실을 서성이기 일쑤다. (떠있는 망루 P.182) 현관문이 여 달히는 듯한 반향음이 들은 것 같아 나는 거실로 나갔다.(떠있는 망루 P.164) 아이들은 각기 자기방에서 잠이들고 거실에서 남편과 앉아 TV영화프로를 보고 있을 때였다.(모든 벽은 문이다. P.170) 안방을 뺀 나는 부엌으로 거실로 괜히 서성대고 있었다.(모든 벽은 문이다. P.179)1980년 이후 거실은 아이의 장난감, 재가 수북한 책벌이, 여기저기 널린 신문들로 어지러웠다.(그림자 외출, p.102)1980년 이후

위 예문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마루는 1900년 이후 서구적인 공간기능으로 변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930년대이후를 배경으로 하고있는 소설에서 마루에 관한 명칭이 양실, 거실과 마루를 혼용하고 있거나 거실로의 명칭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시해야 할 점은 명칭상의 변화만큼 의미상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즉

12) 「문학작품을 통해서 본 한국 주거공간 용어에 관한연구」 서귀숙, 김대년, 신화경, 오혜경, 최경실, 한국실내디자인 학회 논문집 15호, 1998,6, pp 참조

13) 김 종인, 「마루, 대청의 의미와 변용」, 한국주거학회지:창간호, 1990,6, p.29.



거실에 마루의 의미를, 마루에 거실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두 용어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혼용되어지는 현상을 통해 알 수 있다. 위 예문을 통해 마루와 거실을 대비시켜놓고 특성도출을 해보면, 거실로의 명칭변화 현상은 공간 구조상의 내부화 양상도 포함하고 있다. 실내와 실외의 매개적 성격이 약화되고 따라서 공간의 개방성이 약화됨을 의미한다. 특히 실간 연결동선면에서 외부에서 끈장 집안으로 들어설 때의 완충공간인 '현관'의 보급이 본격화 하면서부터 마루, 대청의 거실화는 한층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14)</sup> 전통주거에서의 대청과 현대 주택의 거실의 기능적 공통점을 들면 매개공간적인 성격이 강한 점을 첫째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매개공간적 성격은 현재 거실공간 에서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실내와 실외를 잇는 매개적 기능은 뚜렷이 약화되는 차이가 나타난다. 둘째로 위 예문들을 통해 관찰된 대청마루와 거실의 공통점은 주거, 가족실의 기능을 주로 지닌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주거가족실의 기능이 예나 지금이나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공통점인 면서 동시에 시대에 따른 차이로 거실에서 주거, 가족실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점은 대청에서 일어나는 행위의 다양함보다 거실에서 행해지는 행위가 묘사되어지는 것을 통해 명확해 진다. 대청마루는 두방 사이의 중심에 위치하여 그 복합적 기능을 수행했던 반면, 거실은 공간구조상의 내부화 현상을 통해 주택내부 각 실의 중심에 위치하는 변화와 함께 그 기능이 더욱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대청과 거실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된 현상은 가장 먼저 외부에 노출되는 공간인 집 때문에 주택내 각 기능공간 중 주택의 인상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공간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마루공간과 거실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내부화되는 구조적 차이를 들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리만큼 뚜렷한 차이점으로 파악되는 점은 공간구성 재료와 형식의 변화로 인한 공간구조상의 위계성 약화를 들 수 있다. [문학이 마루에 올라와서 대사보고 절하고...(임격정3권. p.304:25)] [마당은 넓고 마루는 높는데 마당에는 하인들이 왔다갔다하고 마루에는 양반 두 분이 앉아있었다.(임격정4권. p.39:26)] [막봉이가 박선달을 떠밀고 방에서 마루로 나오고 마루에서 마당으로 내려왔다.(임격정5권.p.104:22) 안방을 뺀 나는 부엌으로 거실로 괜히 서성대고 있었다.(모든 벽은 문이다. P.179) 위 문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마루나 대청을 묘사하고 있는 문장에서는 외부공간에서 내부로 접근할 때 마루에서 바닥이 높아지는 장면이 세밀히 묘사되어지는 반면 현대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에서 거실을 묘사하는 문장에서는 바닥의 레벨차이에 대한 언급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볼 때 마루공간의 내부화 현상과 함께 공간구성상의 위계성도 같이 약화되는 현상을 알 수 있다.

14) 앞글 p.30

#### 4. 결론

지금까지 문학 작품의 문장해석을 통해 마루에 대한 의미와 특성을 분석하고, 주거공간에서 마루의 시대적 의미변화에 대하여 고찰해본 결과 다양한 공간 특성과 변화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 '대청과 마루'는 같은 의미를 지닌 공간용어이지만 주로 공간의 규모를 기준으로 구별되어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루를 지칭하는 공간용어들을 살펴보면 넓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좁거나 평범한 규모인 경우 '마루'로, 넓은 경우는 '대청'이라는 용어로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주거공간 내 위치에 따른 마루공간에 관한 용어특성은 '대청'에 비해 '마루'는 공간위치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음으로써 위치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함을 알 수 있다. '대청'과 '마루'는 주거공간 내 위치에 따라 용어를 구별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공간기능에 따른 마루공간특성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마루는 가족의 중요한 행사가 치러지는 예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지닌다.

둘째, 마루는 주거공간 내에서 매개적, 완충공간의 특성, 통로공간 특성을 지님으로써 주거공간의 연계성, 위계성, 기능성 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공간성격을 지닌다.

셋째, 마루는 응접공간의 기능성을 지닌다.

넷째, 마루는 침실, 거실 용도로 주로 많이 사용되며, 방의 주 기능을 포함한 복합적 용도를 지닌다.

다섯째, 마루는 작업공간, 수장 공간 등 다용도실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 소설의 배경으로 묘사된 마루공간의 시대적 변화를 고찰해 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용어변화에 따른 특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여기서 제시된 마루공간용어를 살펴보면 오히려 시대변화와 무관한 일관된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시대흐름에 따른 변화된 특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시된 문장들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제시된 마루공간 용어 중에서 '대청'과 '마루'는 1900년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시대흐름에 따른 용어변화에도 불구하고 마루공간은 가장 먼저 외부에 노출되는 특성으로 인해 주택의 각 기능공간 중 인상을 결정짓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나타난다.

셋째, 현대로 올수록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마루공간용어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마루공간의 형태적, 구조적 다양함이 약화되는 현상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넷째, 1930년대를 전후하여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마루공간 용어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즉 마루공간을 의미하는 공간용어로 양실, 거실이라는 용어가 대두된다.

다섯째, 1960년대를 전후하여 앞마루, 뒷마루, 안마루, 윗마루, 사랑대청 등 다양한 마루공간 용어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마루공간용어들은 전통주거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공간용어임을 나타낸다. 또한 이러한 점은 이 시기를 전후하여 주택유형이 더욱 서구화된 형태로 진행되어감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여섯째, 1900년대 이후 서구적인 공간으로 변용되는 과정에서 마루는 공간구조상 내부화되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마당과 마루의 공간관계는 현판과 거실이라는 관계로 점차 변화되어 진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마루는 실내와 실외를 잇는 매개적 특성은 약화되는 반면 실내에서 각 개별공간을 잇는 완충적, 매개적 속성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띠게된다.

일곱째, 마루의 내부화 현상과 맥락을 같이하여 마루공간이 다른 공간과 레벨차이가 약화됨으로써, 주택내부 공간구성상의 위계성이 뚜렷이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루공간은 1900년 이후 서구 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주택구조의 변화 및 전통적 의미를 지닌 새로운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현대로 올수록 마루공간은 생활공간으로의 비중이 커지고 보다 구조상의 형태는 단순화되어지는 반면, 기능 복합적인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학작품의 문장해석을 통해서 공간 의미분석과 기능분석을 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공간사용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인간의식 속에 경험되어진 공간이 어떻게 문학적 텍스트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해보는 연구방법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의의를 두고 이러한 연구방법의 발전적 전개를 기대하게 된다.

## 참고문헌

1. 윌터 J.웅 저 (이영걸 역), 1985, 언어의 현존, 서울: 탐구당,
2. Amos Rapoport(송 보영 최 형식 공역), 주택의 형태와 문화, 서울: 태림문화사,
3. Amos Rapoport(이 영 건축연구회 공역), 1995, 건조환경의 의미, 서울: 태림문화사,
4. Juan Pablo Bonta(서 유석 역), 1995, Architecture and its interpretation, 서울: 기문당
5. 우리말 큰사전 2권, 1992, 한글학회, 어문각,
6. 이 중우(1988), 체용사상에서 본 주거공간의 변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 Francis D.K.Ching(황 연숙 역), Form, Space, and Order, 서울: 도서출판 국제
8. 김 종인, 「마루. 대청의 의미와 변용」, 한국주거학회지: 창간호, 1990
9. 吉田正昭 (임 만택 역) 환경심리론, 서울: 태림문화사, 1993
10. 김 성우, 이 유미(1995), 주택의 배치 및 평면의 변형을 중심으로 본 재래식 농촌주택의 근대화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지 제4권 1호 통권7호
11. 홍 세균(1995), 인천지역 전통주거의 공간구조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지 제4권1호 통권7호
12. Edward T. Hall 김 광문 박 종호 공역(1995), The Hidden Dimension, 서울: 세진사